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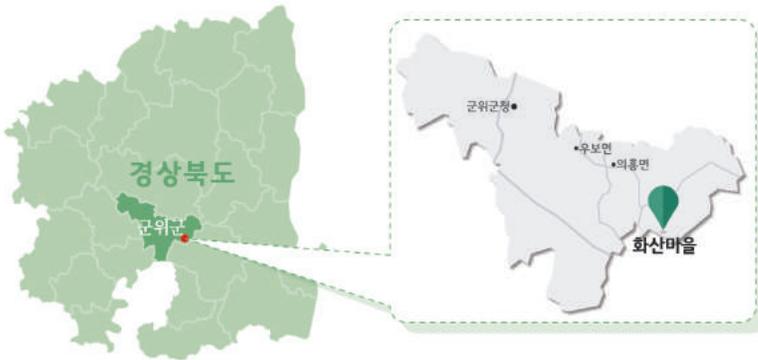
경 관 · 환 경

- 금상 경상북도 군위군 화산마을
- 은상 경상남도 창원시 무점마을
- 등상 충청남도 서천군 느림보마을
- 입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와흘리마을
- 입선 전라남도 순천시 수평마을



무(無)에서 유(有)를, 유에서 미(美)를 만든 행복 경관 마을
경상북도 군위군 화산마을

화산마을은 1960년대 산지 개간 정책으로 정착한 이들이 불모지에 일군 마을입니다.
 지금은 정착민과 귀촌인이 한마음으로 행복한 경관 마을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위치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산길 619-26



인구 97명



가구 47가구



마을 자원

화산산성(경북기념물 47호), 수구문, 옥정영원, 바람언덕, 고랭지 채소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대문 밖 비경! 개척 의지가 만들어낸 화산의 '농촌 미학'

주민의 손으로 일군 마을, 주민의 손으로 가꿔가다

매일 함께하는 밥상머리, 누구나 함께하는 즐거움



개척 의지가 빛은 화산의 ‘농촌 미학’

해발고도 700~800m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발 828m 화산 자락에 있는 화산마을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화산마을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건 1962년으로 비교적 근래입니다. 정부가 1960년대에 주도한 산지 개간 정책의 일환으로 180가구가 이주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변한 마을 이름도 없어 그저 A~D지구로 나뉜 산야를 정착민이 맨손으로 개간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꾸리고, 농토를 만들고, 농토와 집 사이에 길을 열었습니다.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화산마을의 옛이야기는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는 마치 신선이 사는 마을 같습니다. 전국에서 손꼽을 만큼 아름다운 마을이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언덕 화산산성 전망대에 서면 배추와 상추 등을 기르는 고랭지 채소밭과 군위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속까지 탁 트일 만큼 장관입니다. 개척 의지가 만들어낸 ‘농촌 미학’을 실감합니다.

마을을 일군 주민의 노력, 다시 가꿔가는 마을 경관

요즘 화산마을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니다. 귀촌인이 부쩍 늘어난 까닭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 초등학교가 사라졌고, 군부대가 이전하며 20여 가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화산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이들이 하나둘 이주하기 시작해 지난 5년 인구 증가율이 41%에 이릅니다. 이제 화산마을에는 터를 일군 정착민과 새롭게 가꾸는 귀촌인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마을 경관 단지 조성, 마을 경관 규약 실천 등으로 만든 새로운 마을 풍경은 귀촌인과 정착민의 합작품입니다. 바람언덕에 자리한 화산산성 전망대와 풍차, 마을 자체 사업으로 조성한 바람길 1~3구간, 황무지 9,900m²(약 3,000평)에 조성한 해바라기 밭 등 힐링 여행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지난여름에는 '바람언덕 해바라기 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화산마을에 반하고 돌아갔습니다. 고랭지 채소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도 화산마을의 훌륭한 자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산마을 경관 가꾸기의 날, 화산마을 경관 지킴이단 등 마을 경관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마을

불모지를 오늘날 화산마을로 일군 주인공은 정착민입니다. 마을을 주민의 손으로 일구고 가꾸면서 끈끈한 유대감이 다른 마을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커졌고, 이 유대감은 자연을 담은 마을 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산마을은 매일 점심과 저녁을 공동 급식으로 해결합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마을회관에 모여 밥을 먹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끼니를 거르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는 주민 간에 화목을 다지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주민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장면은 또 다른 의미의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그러기에 화산마을은 정착민과 귀촌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주민이 마을 일을 자기 일처럼 행하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느려도 서두르지 않고 마을과 자연을 훼손 없이 지키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비경과 이를 지켜가려는 주민, 그리고 협심하는 모습이 바로 화산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화산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방문객도 화산마을의 참된 농촌 미학을 느끼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마을성과

경관·환경 활동 실적

마을운영위원회

회원 7명
2018년 10회 / 2019년 11회

청년회

회원 15명
2018년 15회 / 2019년 6회

부녀회

회원 30명
2018년 163회 / 2019년 70회

노인회

회원 15명
상시 활동

화산별협동조합

회원 63명
상시 활동

정부 지원 실적

2017년
창조적마을만들기(경관·생태)
〈농림축산식품부〉
5억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아름다운 우리마을을 날마다 볼 수 있어요”

올해 화산마을에 이사 왔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놀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같이 모여 밥도 먹고요. 우리마을은 해가 뜨고 질 때 예뻐요. 사람들은 우리마을을 한 번 보고 가지만, 저는 여기 살아서 날마다 볼 수 있어요.

(의흥초등학교 2학년, 천시연)



“조물주가 빛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힐링하고 가세요”

우리마을 경관은 조물주가 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한 번이라도 찾은 이들은 그 풍경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풍경을 더 많은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견고 먹고 자며 힐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일 것입니다.

(마을 대표, 이중은)



여행 추천 코스

산골에서 즐기는 ‘리틀 포레스트’

1일 차

화산산성 → 0.36km, 승용차 5분 → 화산마을 치유센터복지관 → 1.06km, 도보 16분 → 화산산성 전망대 풍차 → 화산마을 치유센터복지관(숙박)

2일 차

화산마을 치유센터복지관 → 15.35km, 승용차 30분 → 화본마을 → 7.34km, 승용차 14분 →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치유센터
복지관

2019년 10월 화산마을에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이다. 숙박이 가능하고, 마을에서 식사도 제공한다. 김장과 메밀묵 등 계절 체험, 염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054-383-4255



하나 된 마음으로 가꾼 코스모스 마을 경상남도 창원시 무점마을

무점마을은 코스모스축제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중요성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새터민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길88번길 21-12



인구 115명



가구 61가구



마을 자원

동판저수지, 주남저수지, 코스모스길, 이팝나무길, 논 아트, 벽화



행복마을 성공 비법

환경 단체, 새터민, 마을 주민 공동으로 생태 보호 협약

다양한 계층의 화합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마을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기는 코스모스축제



상생과 화합의 생태 보호 약속

무점마을은 물과 꽃, 눈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농촌입니다. 마을과 인접한 동판저수지는 람사르협회가 주남저수지와 함께 철새 서식지 보호 습지로 지정한 명소입니다. 하지만 동판저수지의 수양버들을 두고 벌어진 마을과 환경 단체의 갈등은 오랜 시간 주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개발 제한에 묶여 있던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주민이 가꾼 코스모스길이 창원의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입니다. 방문객이 늘자, 코스모스길을 알리기 위해 창원시와 지역 기업은 물론 갈등을 빚던 환경 단체도 힘을 보탰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꾸면 큰 개발 공사를 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2019년 8월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과 생태 보존 및 생태 보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상생의 가치로 실현하게 해준 주인공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앞으로 무점마을은 지역의 생태 보호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동 환경 정비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모두의 노력이 이끈 상생 공동체

2017년 2회 코스모스축제 당시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며 인연을 맺은 민들레봉사단과 행복마을 만들기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점마을이 추구하는 또 다른 상생의 시도입니다. 환경단체와 협약이 개발과 보존을 아우르는 상생이라면, 새터민으로 구성된 민들레봉사단과 협약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상생입니다. 무점마을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 민들레봉사단은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3회 코스모스축제부터 평양밀면, 아바이순대, 두부밥, 감자전 등 북한 음식을 선보이는 먹거리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축제 기간에 열리는 민들레봉사단의 축하 공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점마을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화합을 위해 귀농인과 귀촌인의 재능 기부를 유도하고,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마을 가꾸기와 환경 정화 활동도 정기 행사로 확대하여 지역 내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함께 어울려 즐기는 코스모스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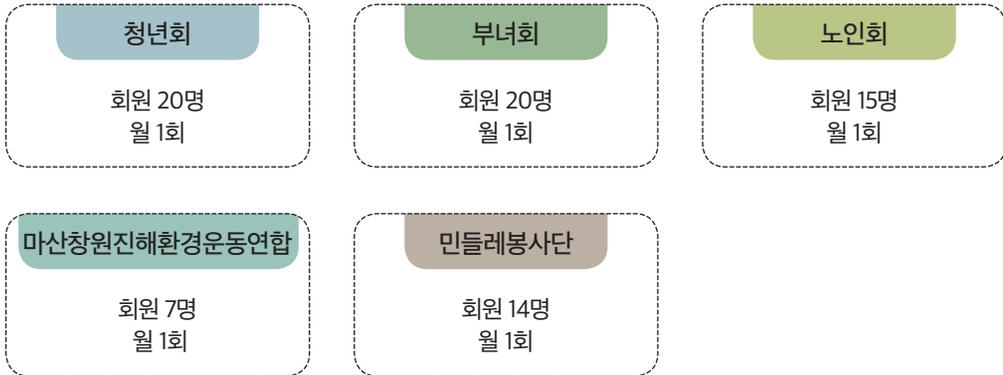
무점마을은 동판저수지와 농지 사이 독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했습니다. 2010년 주민 한 명이 뿌린 코스모스 씨앗 한 톨이 이룬 기적의 공간입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코스모스길은 주민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됐고, 그 노력은 2016년 ‘무점마을 코스모스축제’라는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 ‘10월 추천 가볼 만한 곳’에 무점마을 코스모스길이 소개된 것도 귀한 결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점마을 코스모스축제는 해마다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걷기 행사와 먹거리 장터로 운영한 1회 때와 달리 2회에는 논 아트, 허수아비 공모전, 버스킹 공연을, 3회에는 새터민 북한 음식 체험 부스를 추가해 더 풍성한 축제로 꾸몄습니다. 해마다 방문객도 늘어 2018년 3회 축제에는 8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봄이면 코스모스 대신 유채가 독을 가득 메우고, 여름이면 마을 진입로의 이팝나무가 쌀알처럼 하얀 꽃을 피웁니다. 반목과 갈등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무점마을은 사계절 꽃이 만발하는 행복한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경관·환경 활동 실적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엄마 아빠 손잡고 걷는 코스모스길이 참 예뻐요!”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는 우리마을의 자랑이에요. 코스모스가 독에 예쁜 길을 만들면 코스모스축제가 열리고, 언니 오빠들이 멋진 공연을 하고, 평소에 먹기 힘든 북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 아빠 손잡고 코스모스길을 걸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랑 우리마을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사화초등학교 1학년, 이은솔)



“코스모스보다 마을의 상생과 화합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마을의 성공 키워드가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저는 상생과 화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며 더불어 사는 마을’이 제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환경 단체, 민들레봉사단과 협약을 맺고 지금껏 좋은 관계를 유지한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스모스축제의 성공과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은상 수상이 더없이 기쁜 건 주민과 각 단체가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룬 값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대표, 이재홍)



여행 추천 코스

천혜의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1일 차

주남저수지 → 7.7km, 승용차 12분 → 창원단감테마공원 → 4.6km, 승용차 10분 → 무점마을

2일 차

무점마을 → 14.2km, 승용차 24분 → 창원과학체험관 → 10.6km, 승용차 21분, 유람선 10분 → 돌섬해상유원지

무점마을 체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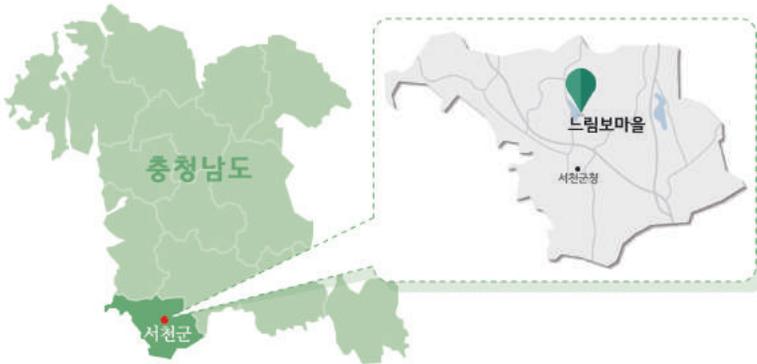
단감 수확기에 맞춰 마을 내 단감 농가에서 단감 따기 체험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5kg 단감 1박스가 제공된다. 최대 100명까지 체험이 가능하다.

☎ 055-212-5110



느릿느릿 정갈하게, 알차고 건강하게 충청남도 서천군 느림보마을

느림보마을은 해바라기를 활용한 환경 정화 활동과 소득 창출 사업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길 179-4

 인구 65명

 가구 35가구

 마을 자원
해바라기, 흥림저수지, 숲속 공연장, 느티나무 쉼터, 희리산, 표고버섯, 약초, 반딧불이, 자생창포길, 다랑논, 벼락바위, 서예 문화 명인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오지마을 다섯 골짜기를 하나로 묶은 경관활동지킴이
해바라기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경관 활동
느리지만 함께 가는 마을공동체 활동



경관 가꾸기로 하나 된 다섯 골짜기

느림보마을은 행정구역상 흥림2리 지역입니다. 한 마을이지만 2~3가구씩 다섯 골짜기 너머에 퍼져 있습니다. 밤이면 수많은 반딧불이가 불을 밝힐 뿐, 가구에서 가구로 가는 길은 칠흑 같았습니다. 마을 옆에 흥림저수지가 있어 외지인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은 더없이 아름다운데, 쓰레기와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주민은 마을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합심했습니다. 마을 빈터에 꽃을 심고 길을 가꾸며 조금씩 마을 환경을 바꿔갔습니다. 마을 풍경 가운데 아름다운 장소는 마을 5경으로 선정하고 정비했습니다. 모두 함께한 덕분에 마을은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자연을 되찾았습니다. 주민은 지금도 날마다 경관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다섯 골짜기로 떨어진 마을이지만, 왕래하고 소통하며 마을 환경을 지켜갑니다.

해바라기가 지켜주는 마을 행복, 마을 경관

해바라기를 활용한 꽃길은 마을 경관 가꾸기 활동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빈터와 길가에 심은 꽃을 생각하다가 마을에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바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씨앗을 활용한 소득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입니다. 주민은 '10년의 미래 약속에 발맞춰 해바라기 경관이 후대에도 이어지도록 정성껏 가꾸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씨를 수확한 첫해에 기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기름을 나는 뒤에도 소득이 발생해, 해바라기씨유와 강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소득이 늘고, 어르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함께 마을을 가꾸고 나누니 수익이 되고, 그 수익이 다시 마을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해바라기를 매개로 주민이 합심한 결과입니다.

마을의 목표는 어르신들이 90세가 넘어도 손자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유산과 자연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값진 성과를 가져다주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함께 가는 마을공동체

느림보마을은 65세 이상 고령자 주민이 약 68%인 초고령화 마을입니다. 고령자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거나, 마을로 시집와 지금까지 살아온 원주민입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며 원주민인 고령자를 중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밤길 사고 방지를 고려했고, 각 집 대문 앞에 개별 가로등 설치를 1순위로 염두에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명패도 달았습니다. 단순히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의 특성을 담은 슬로건을 포함했습니다. 개성을 살리니 공동체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마을이 변하니 타지에 살던 자손의 귀향이 잦았습니다. 명패를 볼 때마다 주민도 행복하고, 고향을 방문한 자녀도 즐겁습니다.

주민은 느려도 오래 함께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해 세 가지 자치 규약을 정했습니다. ‘배려에서 시작하자’, ‘앞을 멈추지 말자’, ‘나눔을 습관화하자’입니다. 느림보마을은 앞으로도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고 더불어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며 행복한 마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마을성과

경관·환경 활동 실적

2015년

가구별 문패 달기, 잡초와 방치 시설물 제거
월 1회

2015~2016년

저수지변 왕버들 숲 간벌 작업,
다량논과 마을 안길 산책로 정비, 들꽃 심기

2019년

쓰레기 분리수거, 해바라기 심기,
꽃밭 가꾸기, 주민역량강화, 마을 대청소

정부 지원 실적

2017~2018년
창조적마을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
5억원

2017년
농촌어르신복지
실천기반조성
〈서천군〉
4,000만원

2018년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서천군〉
5,000만원

2018~2019년
농촌축제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1,000만원
2019년 1,600만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우리가 만든 강정 맛 좀 보실래요?”

제가 67세인데 여기 시니어팀에서 두 번째 막내예요. 언니들하고 일하니 재미있고 좋지요. 맛난 간식도 나눠 먹고, 일해서 용돈도 벌고요. 제 나이에 농사맡고 어디서 일할 수 있겠어요. 손주가 오면 눈치 안 보고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든 기름이나 강정을 좋아해주는 방문객을 보면 또 그리 즐겁지요.

(마을 시니어팀, 최상남)



“노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느림보마을의 철학입니다”

마을을 가꾸고 소득 방안을 마련할 때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편히 걸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 옆 숲길을 다듬고,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도 자주 마련해요. 축제나 잔치를 주기적으로 열고요. 이 모든 활동이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해주죠.

(마을 부녀회장, 신병선)



여행 추천 코스

산과 바다, 자연으로 여행

1일 차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 → 11.07km, 승용차 18분 → 느림보마을(해바라기 가공 작업장 견학) → 0.63km, 도보 10분 → 흥림저수지

2일 차

느림보마을 → 2.48km, 승용차 6분 → 흥원항

느림보마을
견학

마을회관 뒤에 흥림저수지가 있다. 주민을 위한 짧은 숲길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한 산책이 가능하다. 해바라기 가공 작업장은 해바라기씨로 기름과 강정을 만드는 공간이다. 방문 전에 문의하면 작업장 견학이 가능하며, 제품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 041-953-0001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체험·휴양마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와흘리마을

와흘리마을은 특산물인 메밀을 활용한 축제와 체험·힐링센터를 통해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도시민에게 일상을 벗어난 휴식과 이색적인 체험을 선사합니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4길 10

 인구 1,118명

 가구 521가구

 마을 자원
와흘분향당, 만나머루(메밀밭), 생태 연못, 와흘굴, 와흘메밀마을체험·힐링센터

 행복마을 성공 비법
주민의 자발적인 지킴이 활동
마을 브랜드 개발, 문화 콘텐츠 제작
당곳과 메밀축제 등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다양한 축제



주민 모두가 환경·문화 지킴이

와홀리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 풍속을 품은 한라산 동쪽의 중산간 마을입니다. 와홀은 '한라산이 완만하게 바다로 흘러내리는 지형을 본떠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맑고 깨끗한 환경은 마을이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활동은 청년회, 부녀회 등 자생 지킴이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가꾸지 않으면 언젠가 훼손되고 불모지가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회는 해마다 마을 주변의 내대지를 정비하고, 경관 개선에 나섭니다. 부녀회는 마을 환경 정화 활동, 마을 교차로 화단 가꾸기 등을 전개합니다.

부녀회는 공동체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입니다. 매월 어르신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김장을 나누는 봉사를 합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밖에 생활개선회, 개발위원회 등도 마을 환경과 문화를 지키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곧 마을 브랜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잘 가꾸진 농촌다운 모습이 와홀리마을의 장점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와홀리마을의 차별화된 매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마을이 공동 소유한 토지(먼 나머루)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마을 특산물인 메밀을 심어 특별한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메밀을 심고 가꾸는 일은 고되지만, 꽃이 필 때면 그간의 수고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한라산 아래 펼쳐진 새하얀 메밀밭은 이제 와홀리마을을 알리는 일등 공신입니다.



2018년에는 만나머루에 와홀메밀마을 체험·힐링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이곳은 메밀을 이용한 음식 체험과 휴식으로 도시민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더불어 2019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을의 대표 경관인 메밀밭과 밭담, 오름, 생태 연못 등도 브랜드로 만드는 중입니다. 마을 자원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한라산이 보이는 와홀리마을 풍경을 아이콘으로 홍보하는 노력도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본향당 당굿과 메밀축제

이 모든 마을사업의 중심이 와흘본향당(제주민속문화재 9-3호)입니다. 본향당 중앙에 마을의 신목이 있습니다. 팽나무는 400년 동안 화재와 태풍 등을 겪으며 여러 번 고사 위기를 겪었지만, 주민이 정성을 다해 관리보호하고 있습니다.

와흘본향당에서는 음력 1월 14일과 7월 14일에 당굿을 진행합니다. 주민에게는 화합과 단결을, 관광객에게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정초에 여는 신과세제(新過歲祭)는 본향당 당신에게 드리는 새해 인사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타향에 있던 출향민이 내려와 안부를 묻고 반가운 시간을 보내며 마을의 결속을 다집니다.

메밀꽃이 피는 시기에는 만나머루 메밀밭에서 축제를 열어 특별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합니다. 축제를 여는 가장 큰 취지는 주민의 즐거움과 화합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메밀로 만든 음식을 나누고, 윷놀이와 노래대회를 하며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아기자기한 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이 품은 아름다운 와흘리마을의 풍경입니다.

마을성과

경관·환경 활동 실적

생활개선회

회원 18명
2017년 4회 / 2018년 4회

노인회

회원 109명
2017년 12회 / 2018년 12회

청년회

회원 28명
2017년 16회 / 2018년 16회

부녀회

회원 30명
2017년 12회 / 2018년 12회

방문객 수 (단위 : 명)



정부 지원 실적

2005년
정보화마을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3,000만원

2009년
자연생태우수마을
〈제주시〉
1,000만원

2009년
농촌건강장수마을,
베스트특화마을
〈제주시〉
6,500만원

2015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6억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우리마을은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우리마을은 생태 연못에서 붕어와 개구리, 연꽃을 구경하고, 연못 옆에 있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참 좋아요. 할머니께서 우리마을에는 본향당이 있는데, 그곳에 옛날부터 우리마을을 지켜 주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마을 수호신 같은 나무예요.

(대흥초등학교 1학년, 김도경)



“본향당 당굿과 메밀축제로 화합합니다”

마을 본향당에서 매년 음력 1월 14일, 7월 14일에 당굿이 열립니다. 출향민도 마을에 모여 당굿에 참여하면서 무사 안녕을 기원합니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만너머루에서는 메밀꽃이 필 때 메밀축제를 개최합니다. 이 모두가 주민이 서로 아끼고 화합하는 마음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마을 대표, 김두환)



여행 추천 코스

제주의 청정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1일 차

김경숙해바라기농장 → 3.7km, 승용차 4분 → 서프라이즈테마파크 → 3.5km, 승용차 6분 → 와홀메밀마을체험·힐링센터(체험, 숙박)

2일 차

와홀메밀마을체험·힐링센터 → 6.1km, 승용차 10분 → 제주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 1.8km, 승용차 3분 → 에코랜드

와홀리마을
특산물

와홀리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메밀이다.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서 생산한 무공해 청정 농산물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생활개선회에서 여러 가지 가공품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 064-782-0391



늘 푸른 생태마을 속에 행복과 건강 찾는 전라남도 순천시 수평마을

수평마을은 자연 생태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협동해서 환경과 주민이 하나 되는
친환경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수평길 117

 인구 132명

 가구 7가구

 마을 자원

황전천, 독 꽃길, 옥녀봉, 연 방죽, 늘푸른생태마을 생태 텃밭,
꾸러미 공동 작업장, 자연 생태 농법, 황전초등학교, 매실, 감, 오색미 등

 행복마을 성공 비법

자연 순환형 생태 농법 추진
늘 푸른 '따순마을' 육성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마을경관 유지를 위해 노력



건강하게 지켜가는 자연 순환 생태 농업

수평은 '깨끗하고 맑은 물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수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논이 있으며, 마을 중앙에는 연못이 자리합니다. 물이 마을 안에 흐르니 경작이 수월했고, 주민은 벼농사와 밭농사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고 생활이었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 회장이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입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을 더 건강하게 생산하자는 취지로 주민은 토착 미생물과 천연 발효액을 활용한 생태 농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순천시에서 추진한 '친환경생태도시' 정책과 발맞춘 행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2016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지원으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물과빛사랑공동체 영농조합법인과 늘푸른생태마을 소득법인을 구성하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것입니다. 친환경 농법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고, 결국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지역으로 넓어지는 ‘따순마을’ 프로젝트

순천시는 따순(따뜻한 순천)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마을을 가꾸고, 지키고,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수평마을은 대표적인 따순마을입니다. 가장 중점적인 마을 가꾸기 활동은 마을 앞으로 흐르는 황전천 독을 꽃길 산책로로 조성한 것입니다. 수차례 논의를 통해 안정감을 주는 로즈메리가 외로이 사는 마을 어르신에게 좋을 거라 생각하여, 모든 주민이 함께 로즈메리 화단을 황전천에 만들었습니다.



독길 경관이 아름다워지니 삼삼오오 독길을 걷고 이야기하는 주민이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민 간 소통의 기회가 늘어났고, 이는 다시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꾸러미 공동 작업장은 그 과정을 거쳐 태어났습니다. 주변 지역 학생과 귀농귀촌 가구가 친환경 농법을 체험해볼 수 있는 생태 텃밭으로, 아이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감사를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건강한 작물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마을 가꾸기를 해온 주민의 열정과 노력의 과정들로 자연의 가치를 깨달으며, 이제는 마을을 넘어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조성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 인식

수평마을 주민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마을 회관에 모여 중·장년층이 정성껏 마련한 건강한 밥상을 나눕니다. 공동 식사 시간을 마을이 만든 친환경 먹거리의 가치를 느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즐겁고 흥겨운 마을 잔치 역시 자주 엮입니다. ‘문화 나눔장터 한마당’은 수평마을 자연 속에서 자란 친환경 농산물을 소개하고 나누는 장입니다. 순천 시민에게 마을의 친환경 농산물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전할 수 있어 소중합니다. ‘어버이날 효도잔치’는 마을 어르신에게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자연을 지켜 그 속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돌봄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순환한다고 믿습니다.

수평마을의 최종 목표는 조건 없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 삶이야말로 있는 그대로 누리는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자연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깨끗하고 향기로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성과

경관·환경 활동 실적

마을 경관 가꾸기(마을 주민 전체)

1회 참여 인원 14~40명
월 1회

마을 길 정비(마을 주민 전체)

2016년 마을 산길 정비
2019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정비

마을 환경정화 활동

폐비닐 및 영농폐기물 수거
황전천 쓰레기 수거
분기별 1회, 20명

마을 꽃길 조성

화단 철쭉 및 국화, 허브 식재
1년 1회, 37명

정부 지원 실적

2017~2018년
도농교류생태텃밭따순마을만들기
〈순천시〉
300만원

2018년
마을 만들기
〈순천시〉
5억원

마을의 미래, 우리마을의 자랑거리

“독길 걸을 때 심심하지 않아요!”

예전 독길은 그냥 시멘트 길이었는데, 화단을 만들고 꽃을 심으면서 확 달라졌어요. 로즈메리 향기도 좋고, 꽃을 보며 걸으니 심심하지 않아요. 꽃 모양이 날마다 바뀌고, 화단 주변으로 나비가 모여들어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화단 만들 때 저도 조금 도와줬는데, 마을 어른들이 열심히 만드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우리 집 정원처럼 아끼고 싶어요.

(순천월전중학교 1학년, 노진호)



“자연 농법으로 고향 발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평마을은 제 고향이에요. 저도 황전초등학교에 다녔죠. 퇴직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귀향했습니다. 돌아온 마을에서 친환경 농법을 알았어요. 자연 농법이 옳다는 믿음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법인도 함께 운영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평마을을 만들어가니 뿌듯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복한 마을을 위한 노력이 그대로 행복이니까요.

(마을만들기위원회, 조영규 위원)



여행 추천 코스

호젓하게 걷는 자연 풍경 여행

1일 차

선암사 → 20.47km, 승용차 27분 → 수평마을(자연 농법 농장 견학) → 39.13km, 승용차 41분 → 송광사

2일 차

순천고인돌공원, 주암호 → 21.51km, 승용차 32분 → 낙안읍성민속마을 → 0.3km, 도보 5분 →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수평마을 체험

자연 농법으로 운영하는 법인 소유 농경지를 둘러보며 자연 농법의 효율성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법인은 노지와 하우스 농사로 사계절 내내 농작물을 수확한다. 농장 견학 후 당일 수확 체험과 구매도 할 수 있다.

☎ 061-754-9015